

주간기도정보

2025. 6. 1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폭염도 꺾지 못한 ‘거룩한방파제’...“악법 앞 침묵 않겠다”

건강한 가정과 다음세대 수호 위해 약 30만 결집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약 3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과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문화 확산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통합국민대회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쿼어축제에 맞서 건강한 가정과 다음세대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학생인권특별법 및 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등 네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힘을 모았다.

이날 설교를 맡은 대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며 “동성애나 양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흐름을 막고, 동성애자들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퀴어행사는 헌법에 위배되고, 다수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 목사(마가의다락방교회)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동조이며,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회장인 김선규 목사는 “동성애는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사회와 다음세대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리며,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한다”며 “정치인들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광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해외 교포 출신 박모(30) 씨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참석했다”며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혼도 합법화되지 않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올라온 대학생 임수진(22) 씨는 “대학 내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서울 쿼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현장 곳곳에서는 동성애 옹호·조장과 정치적 선전, 선정적인 모습들이 포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축제라기보다는 동성애를 선전하는 장에 가까웠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데일리굿뉴스 종합).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에스겔 36:23)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1-2)

하나님, 온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을 더럽히며 악한 법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거센 폭풍 속에 한국교회가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의와 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려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악한 사탄의 모든 간계와 흐름을 끊어주시고 분별치 못하고 어둠에 치우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진리를 선포하고 경책하며 권하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방파제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끊임없이 막아주소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온 땅이 알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북, 농촌 전기 돌려 국경 신축 아파트 조명, 주민 분노
전력난 속 도둑전기로 신발공장 변압기 불타



최근 북한 당국이 농사에 써야 할 전력을 북·중 국경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 조명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외부 조명에 농촌의 전기를 돌리는 당국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는 5월과 6월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양수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 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기가 국경지역 신축 아파트의 외부 야간 조명으로 전용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신의주 수해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 조명 때문에 주민들의 비난이 들끓는다”며 “농업용 전기를 외부 조명에 돌려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과 마주한 압록강변의 신축 아파트는 야밤에도 외경이 대낮 같다”며 “당에서 외부 조명을 환히 밝히려는 지시를 내려, 농촌에는 전기가 부족해도 이곳에는 항상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도시나 농촌, 국경이나 내륙 할 것 없이 전력 사정이 열악해 대부분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밖에 전기를 못 쓰고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한 공급이 아니라 중국에 보이기 위한 장식용 조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요즘 신의주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면서 “반면 농촌지역에는 전기가 없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직 농장들에서 벼 모내기기를 마무리 하지 못해 농장원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면서 “오는 13일을 모내기 마감기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논물을 댈 양수기를 돌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당에서는 전기를 아파트 외경을 밝히는 데 돌리면서 도내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면서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농사에 공급할 전력을 압록강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야간 조명으로 공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한편, 양강도의 한 신발공장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해산시 송봉동에 위치한 이 공장은 북한 당국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복을 생산하는 곳으로, 정상적인 전기 공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인근의 영농물자수송대와 시 버스사업소가 공장 간부들과 짜고 몰래 도둑전기를 사용한 것이다.

이들이 신발공장의 변압기에 불법적으로 전기선을 연결해 사용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결국 변압기가 타버렸다.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양강도당은 긴급 수리를 지시했지만, 변압기에 들어가는 구리선과 기름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약 40일이 지난 후에야 수리가 완료됐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시편 65:2,9)

하나님, 심각한 전력난과 전력 공급의 차별로 인해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과 불신이 거세게 치닫고 있는 북한을 의탁드립니다. 선전용 조명을 대낮 같이 밝혀도 독재정권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의 어둠은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위정자들의 부패함과 죄악들이 더욱 드러나 진리의 책망을 받게 하소서. 겉으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마음이 텅 비고 곤고하여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북한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나아가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4천여 기독교청년, 믿음으로 결단

14일 ‘더홀리스퍼릿 페스티벌’ 개최, ‘신앙 회복’ 한목소리 다짐



“여기에 모든 고통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관중석을 가득 메운 4,000여 명의 청년들이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맞춰 일제히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찬양이 고조될수록,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다는 외침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기독교 청년들의 성령 축제 ‘2025 더홀리스퍼릿 페스티벌’이 이날 ‘계속 나아가자’(Keep Moving Forward)라는 주제로 열렸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믿음 위에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도록 돕기 위한 자리였다.

홀리스퍼릿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06년부터 청년 세대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해 개최해 온 대규모 청년 성회다.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 갇혀 낙심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예비해두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목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했다. 그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라면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한다. 현실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청년들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친구 소개로 축제에 참석했다는 양주 꽃동산교회 김주환(17) 군은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이 깊게 와 닿았다”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부 친구들과 참석한 이승준(27, 순복음노원교회)씨는 “취업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스스로에게 실망이 커지는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한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느껴졌다”며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 이민정 씨도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오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홀리스피릿 준비위원장 오수환 목사는 “청년세대가 일상에서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시대일수록 크리스천 청년들은 삶을 향해 분별된 다짐을 가져야 한다”며 “홀리스피릿 성회 이후에도 ‘신자가 아닌 제자인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국민일보 종합).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히브리서 1:12)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현실의 무한 경쟁 속에서 헤매는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꾀대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회로 모인 청년들이 과거의 고통과 실패에 얽매인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한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죄악과 절망 속에 길을 잃은 이 땅의 영혼들이 나의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번 성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 이 나라와 열방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